

2007년 아산상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그린닥터스를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 국경을 초월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다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 재난지역에서 긴급구호활동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정근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그린닥터스 직원들.

2023년 2월 튀르키예를 뒤흔든 최악의 지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린닥터스는 즉시 긴급의료봉사단을 꾸려 현장으로 향했지만 봉사단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 한밤중에 일어난 6.4 규모의 여진 때문에 숙소에서 뛰쳐나와 길 위에서 밤을 꼬박 새웠고, 이후로도 계속되는 여진은 그린닥터스 봉사단원들과 이들을 돕는 현지 주민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봉사단의 이동을 책임졌던 버스기사가 겁을 먹고 ‘안 가겠다’고 해서 어렵게 설득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그날 진료를 마쳤는데 ‘자국민인 나도 가기 싫은 위험지역을 외국인인 당신들이 가는 것을 보며 부끄러웠다, 앞으로 당신

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지요. 기본적인 의약품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과 현지 의료진들이 ‘형제의 나라’라며 환영하고, 항공기에서는 기장이 기내방송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승무원과 탑승객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일도 있었어요.”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봉사단을 믿고 환영해준 튀르키예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이었다’고 덧붙인다.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5일간 가장 피해가 큰 안티키아와 이스켄데룬을 방문해 약 260여 명의 이재민과 부상자를 진료하고 무사히 귀국했다.

## 국제적 재난지역에서 의술을 펼치다

그린닥터스는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봉사단체로 1997년 백양의료봉사단에서 시작됐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본 정근 이사장은 부산지역 의료진 30여 명과 뜻을 모아 백양의료봉사단을 만들었다. 외환위기가 수습되고 경제가 회복되자 백양의료봉사단은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해외로도 눈을 돌려 2002년 중국 옌벤과 옌청을 시작으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재난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2004년 스리랑카 쓰나미 재난부터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대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참사를 비롯해 최근 튀르키예와 미얀마 지진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다.

2005년에는 개성공단에 응급진료소를 세우고 남북협력 병원인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으로 확대해 8년간 운영하며 의료를 통한 평화의 사절 역할을 했다.

## 30여 년 간 전 세계 어려운 이들을 돕다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2012년 철수했지만 정근 이사장은 지금도 같은 동포인 북한을 돕기 바라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

“2008년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에서 결핵퇴치사업을 운영했지만, 지금도 북한은 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국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적인 교류가 시작되면 황해도 해주에 결핵병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베트남, 러시아에 친선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 외에도 식량지원 등의 교류도 기대할 수 있고, 해외 긴급구호활동의 거점도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의사를 북한 결핵병원에 파견하거나, 동남아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의료봉사도 가능하죠.”

최근에는 유엔 산하 봉사기관단체 등록을 추진하며 명실상부한 범국제적 의료 NGO로 도약할 계획이다. 그린닥터스는 30년 가까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곁으로 달려가 생명을 구하며 세계 곳곳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글 편집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린닥터스 의료진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의료지원에 참여한 그린닥터스 회원들.